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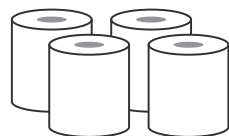
긴급 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트러블



재해, 전염병 유행 등 긴급사태 시에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고, 그 가운데에는 악의적인 거짓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을 익혀 신빙성이 낮은 정보를 그대로 믿거나 함부로 발신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시에는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재고가 충분한 물품(화장지 등)을 사재기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시에 올바른 정보를 얻기 위한 포인트!

-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 긴급 시에는 여러 정보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할 것!**
책이나 신문 등 인터넷 이외의 발신원에서 정보를 모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 인용했거나 전해들은 정보인 경우에는 **원래의 정보 출처를 찾아서 확인**을!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에서 나온 정보인지 확인**을!
- 오래된 정보와 **현재의 정보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모르는 것”은 남에게 알리지 말고 확산시키지 않는다!**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혼란을 틈타 다양한 종류의 소비생활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주변 사람들이 소비생활종합센터에 상담합시다!



상담 창구

요코하마시 소비생활종합센터 TEL: 045-845-6666

평일 9:00-18:00
토요일 및 일요일 9:00-16:45

요코하마시 소비생활종합센터

요코하마시 경제국 소비경제과 2025년 4월 발행



본 리플렛의 PDF 데이터는 여기로



요코하마시 소비생활종합센터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소비생활 속의 트러블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체크포인트



태풍으로 집의
지붕이 부서졌다!
수리하고 싶은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품귀 상태인
상품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이야?



관청에서 전화가 와서
급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이야?



Check!

지진, 풍수해, 전염병 유행...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사태.

여러분을 노리는 이런 트러블에 주의하세요!

지진 및 풍수해 시의 소비생활 트러블

지진 및 풍수해 등의 재해 시에는
주택 등의 수리에 관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ASE 1

요금 트러블

■재해로 부서진 지붕의 공사를 하지 않겠냐고 점검하러 온 업자의 권유를 받아
계약을 했지만 비싸기 때문에 해약하고 싶다. 클린 오프 가능한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포인트

- “지금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등과 같이
불안을 부추기는 권유를 받아도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 않는다!**
- 주변 사람에게 상담해서 **계약은 신중하게!**
- 다수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비용, 공사기간, 업체의 신뢰성 등을 **충분히 확인**



CASE 2

보험에 관련된 트러블

■보험금 신청 대행 업체가 방문하여 태풍이나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권유를 받았는데, 계약해도 문제되지 않는가?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포인트

-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직접 문의를.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 내용을 확인!
- 거짓인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에 가담한 것이 됨!**
- 성공 보수로 **사전에 설명이 없는 고액의 수수료 등을
청구하는 악질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보험 신청을 지원한다” 등과 같은 권유를 받았다면 주의가 필요!



감염병 유행 시 소비생활 트러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 확산 시에는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한
여러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CASE 1

강매 상법에 의한 트러블

■“마스크 5매”라고 적힌 소포가 도착했다. 편지나 주문서,
청구서 등은 들어 있지 않았다.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서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의심스럽다.
주문한 기억은 없고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이후에 청구될까?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포인트

- 기억이 없는 상품이 도착했을 때는 **우선 발송처를 확인!**
- 일반적으로 상품을 보내온 경우에는
도착한 상품을 즉시 처분하는 것도 가능.
대금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CASE 2

사칭에 의한 트러블

■시의 코로나 대책실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보조금을 배부하고 있다.
은행 계좌로 송금할 테니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의심스럽다.



트러블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포인트

- 시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휴대폰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사취하려는 사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방문 등으로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를 묻거나
현금카드나 통장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이나 성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그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에 직접 확인을!**

